



사랑과 인내, 그리고 용기

- 「노인과 바다」를 읽고-

이 해 상*

「노인과 바다」는 멕시코만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 산티아고의 이야기이다. 줄거리를 살펴보면, 산티아고 노인이 84일 동안이나 바다에 나갔지만 아무런 수확도 올리지 못했다. 그러던 그는 85일째 되던 날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더 먼 바다까지 나간다. 한낮에 거대한 물고기가 걸려 노인은 이틀간의 사투 끝에 그 물고기를 작살로 찢어 배옆에 매어 끌고온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얼마 후에 상어가 나타나 그 물고기에게 덤벼들어 살점을 물어 뜯는다. 노인은 혼신의 힘을 다해 상어를 물리치지만 항구까지 오는 동안 또 다른 상어떼들의 습격을 받는다. 항구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상어떼들이 물고기를 다 뜯어 먹고 머리와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다는 내용이다. 내용이 아주 단순하고 시간적으로 단기간의 이야기이다.

이처럼 매우 단순한 소설 양식을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작품의 교훈은 한마디로 인내와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과 그에 따른 인내력을 보여주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일을 헛된 결과로 끝나고 만다. 그러나 그는 결코 절망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최후까지 인간답게 견디어 냈으므로 결코 패배하지 않은 것이다. 남이 보기에는 비웃을 일일지는 몰라도 노인에게는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 가

* 해사대학 해사수송과학부

치있는 일이기 때문에 노인은 자신의 일생에서 오히려 승리자인 것이다.

“인간은 패배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인간은 비록 죽음을 당할 지언정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산티아고 노인의 신조였다.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은 늙은 어부와 그의 어린 친구인 소년, 단 두사람 뿐이다. 그러나 작품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여기에서는 인간이외에도 노인이 잡은 큰 고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거대한 고기는 노인의 적수이자 친구로서 묘사되고 있으며, 또한 바다도 여성으로 묘사되어 의인화된 자연으로 존재하고 있다.

산티아고 노인은 고기와 싸우는 이틀 낮과 밤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회상하고 꿈꾼다. 특히 아프리카의 해변에서 보았던 사자와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의 일이 자주 떠오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므로써 노인은 사자와 조 디마지오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동물의 왕 사자와 야구왕 조 디마지오를 자주 등장시킴으로써 노인의 행위를 영웅적으로 간주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 소설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는 이 소설에서 노인만큼이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은 자신의 어부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매일 바다로 나간다. 이 어부일은 노인에게 있어 생계 수단도 되겠지만 고기를 잡을 때의 노인의 태도를 보면 그것보다는 노인이 무의식적으로 바다가 풍기는 매혹적인 흡입력에 도취되어 버린 것 같다.

인간은 원시적부터 바다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동경해왔다. 육지는 자신의 발로 어디든 가 볼 수 있지만 인간에게 바다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다에 선편 뜻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배를 만들어 탄다고해도 육지에서 멀리 갈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바라만 보며 막연히 동경해 온 것이다. 그 밖에도 바다는 생명의 근원적인 발원지이기 때문에 태아가 모체에 한없는 친밀감과 따스함과 편안함을 느끼듯이 인류가 잠재적으로 바다에 대해 모체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지도 모른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자연, 즉 바다가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바다는 노인에게 있어서 결코 적대자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 자기 완성의 기회를 갖고 온

해를 배푸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여기서 해양개척의지 및 해양 친화사상을 느낄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자연친화사상도 드러난다.

이러한 자연속에서 자기 이외의 어떤 대상과 힘껏 싸우고, 그로 인해 괴로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인간이지만, 산티아고 노인은 운명에 허무하게 굴복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과 소년과의 짧은 대화와 만남의 모습은 인간만이 가질수 있는 친밀감과 정다운 유대감을 느끼게 한다. 여기서 가장 인간을 이해하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또 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간다는 것도 어찌면 망망한 바다 위에 조각배를 띄우고 낚시질하는 어부와 같이 결국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을진대,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꾸준히 버텨 나간다면 인생에서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면 멍청하리만큼 고난을 견디는 노인이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기까지 한다.

84일간을 한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생각하며 바다로 나아가는 노인, 노령의 몸에도 불구하고 끈기있게 고기와 싸움을 버텨내는 노인,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고된 인생에 인내하는 인간사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노인의 독백에서 언뜻 언뜻 보이는 극한의 외로움, 소년이 옆에 있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하고 바라지만 아무도 없는 바다의 한가운에서 지친 한노인이 어떻게 그 외로움을 이겨 내는가? 아니 그 외로움의 근원이 무엇일까? 노인이 꿈속에서 보는 사자의 모습은 육체적인 강건함이 아닌 정신적인 강건함, 즉 자유스러운 인간의 영혼을 꿈꾸는 것일 것이다. 사자의 꿈이 은연중에 나타내는 그 자유스러운 영혼이 무엇인가에 의해 억압당해서, 작은 이익을 위해 인간의 의연함을 포기하는 사람들, 또는 점차 경망스러워져가는 인간의 꿈에 억압당해서 생겨나는 외로움일 수가 있다.

그래서 노인은 낚시줄에 내려앉은 한마리의 작은 새에서, 하늘에 떠오르는 별이나 달, 날치 등에게서 친구임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심지어 노인은 낚시에 걸린 큰 고기를 생각하며.

다음 순간 노인은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저 큰고기가 가없어졌다. 그러나 고기가 가없게 여겨졌다고 해서, 놈을 죽여야 한다는 결심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저놈 한마리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저놈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일까? 아니지, 물론 아냐. 저 당당한 태도와 저 위엄을 생각하면, 저놈의 살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위에서 보면 노인이 느끼고 있는 외로움의 근원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노인은

“인간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죽을 수는 있지만”

이라고 생각하며 인간의 위엄과 존엄성을 되살리기 위해 애쓰며 희망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심지어 죄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면 그 희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어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노인은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죄가 될까? 어부가 그 고기를 잡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인간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죄일까? 노인은 어부로 태어났고, 어부의 친구인 물고기는 물고기로 태어났을 뿐이지만.

‘너는 고기가 살았을 때도 고기를 사랑했고 죽은 후에도 사랑한다. 만약 고기를 사랑한다면 죽인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는 않아.’

그는 그 고기를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것처럼 훌륭하고 당당한 고기를 죽이기 위해서는 인간도 역시 그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그러나 노인은 결코 고기를 미워하지 않는다. 비록 고기와 목숨을 건 싸움을 하지만, 그것은 증오와 미움이 섞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인에게는 애정어린 행위이다. 고기를 죽이지 않으면 안되는 산티아고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의 슬픔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자면 자신이 직접 고기를 죽이지 않는

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리라. 이것은 물고기
에 국한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즉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역시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각자 제멋대로 추측
하고 자기 합리화하여 상투적으로 말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
기가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모든 생물, 또는 하늘의 별이나 달까지
도 친구로 생각하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이다.

결국 노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큰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아주 큰 뼈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남겨야 할 것은 결코 물질적인 것일 수는 없
을 것이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온 뒤 다시 사자의 꿈을 꾀다. 아프리카의 해변에서
갈매기를 날리며 힘차게 살고 있는 자유스러운 영혼을.

「노인과 바다」를 찬찬히 읽어보면 인간이 운명에 도전하기보다는 인간
들이 스스로 파괴해 나가고 있는 그 운명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의 손으로 어떻게 이루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노인의 독백을 통해 보여주
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운명에 도전할 것이 아니라 운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는 몇 년 후에 실제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것이기 때문에 산티
아고 노인의 이야기가 나에게서 다른 사람과는 또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다. 나도 산티아고 노인처럼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인내력 등이 나를 많이 깨우치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여태지금까지 바다
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이 소설을 읽은 후엔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다. 바다가 그냥 물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명이고, 신비로운 면을 가지고 있
는 존재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 학교의 자갈
마당에서 보는 바다가 마치 친구와 같이 느껴졌다.

